

온실가스 방치 땀 기후 재앙 광주·전남 겨울이 사라진다

기상청 '기후변화 상황지도' 분석

76년 뒤 2100년엔 '삼계절' 예측
봄 90·여름 190·가을 85·겨울 0일
40도 넘는 초재난급 폭염 일상화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76년 후 광주·전남 한여름 최고기온이 40도를 넘는 초재난급 폭염이 덮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여름 4월부터 시작해 각각 연간 190, 180일 동안 지속하고, 겨울은 실종돼 '사계절'이 사라지고 이른바 '삼계절'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기후·환경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후 재앙'을 후대에 물려주지 않으려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기상청의 '기후변화 상황지도'에 따르면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면 오는 2100년 광주·전남에서 여름은 4월(광주 24일, 전남 28일)부터 시작해 1년의 절반 수준인 광주는 190일, 전남은 185일 동안 이어진다.

'온실가스를 현저히 감축하는 경우'(SSP1-2.6·저탄소 시나리오, 이산화탄소 농도 432ppm)와 '온실가스를 현재와 비슷하게 배출하는 경우'(SSP5-8.5·고탄소 시나리오, 이산화탄소 농도 1089ppm)에 따라 증가 폭이 다를 수 있지만, 광주·전남의 여름·폭염·열대야는 증가하고 한파는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각 46.2일인 광주 시 폭염일수(하루 최고체감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와 열대야 일수는 2050년 각 51일과 48.6일로 늘고, 2100년에는 128.5일과 105.8일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지역 고탄소 시나리오도 폭염일수는 올해 30일에서 2100년 112.9일로 폭증하고, 열대야도 올해 38.8일에서 101.9일로 늘어난다.

반면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2100년 광주지역 폭염일수가 각각 47.3일·45.1일로 뚝 떨어지고, 열대야 일수도 각각 42.8일·38.6일로 예측됐다. 전남 역시 2100년 폭염 일수는 29.7일, 열대

야일수 34.6일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광주 83.4일, 전남 83.2일의 폭염일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름철 일 최고기온도 고탄소시나리오 경우 광주는 44.0도, 전남은 41.9도까지 치솟지만, 저탄소시나리오에선 광주 39.3도, 전남 37.5도에 머물렀다.

결국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21세기 후반 광주·전남의 겨울 일수는 모두 '0'일로, 겨울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이 이어진다는 가정에 따라 사계절 변동 여부를 예측해 보면, 30여년 뒤인 2050년 광주의 사계절은 봄 89일, 여름 153일, 가을 75일, 겨울 48일로 예측됐다. 2100년이 되면 봄 90일, 여름 190일, 가을 85일, 겨울 0일로 사계절이 아니라 삼계절이 된다.

전남지역의 2100년 사계절도 봄 94일, 여름 185일, 가을 86일, 겨울 0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이 실종되면 여름일수(하루 최고기온이 25도 이상인 날)는 큰 폭으로 늘고, 한파(하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는 사라질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전망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금부터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시작한다면, 2100년 광주와 전남지역의 겨울은 각각 62일과 50일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고탄소 여부에 따라 강수량도 차이가 발생한다. 2019년 각 1121.83mm, 1404mm 비가 내린 광주·전남에 2100년 고탄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각각 1989.7mm, 2118.1mm의 비가 내리고, 저탄소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각각 1669.2mm, 1745.1mm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문제는 고탄소 적용에 따라 늘어난 강수량은 단순한 형태의 비가 아닌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른바 '게릴라성 물폭탄' 형태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기후변화는 현재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폭우 피해를 비롯한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종필 광주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예상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광주·전남의 여름 일상은 재년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폭염에도 문 닫혀있는 무더위 쉼터 ▶6면

타이거즈 전망대 - KIA, 추격자 LG 만나다 ▶19면

위경해 호남 극장 영화사 - 극장 간판 화가 ▶22면



“아듀” 2024 파리 올림픽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생드니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폐회식이 화려한 불꽃 놀이로 마무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안세영 발언 ‘체육정책 개혁’ 이끄냐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선수 부상 관리·보조금 운영 실태 등 조사
체육계 잘못된 제도 개선 의지...지역민들 안세영 선수 응원·격려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삼성생명) 선수의 '작심 발언'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관련기사 2·11·18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고,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국민의힘 진중오 의원은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하면서 안세영의 '작심 발언'이 향후 체육계 전반에 대한 개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 정치권과 지역민들도 안세영 선수에 대한 응원·격려를 보내고 있다.

문체부는 12일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미흡한 부상 관리, 복식 위주 훈련, 대회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체육계 내부에서 논란이 됐던 제도 관련 문제, 협회의 보조금 집행과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제도 개선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문체부가 올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71억2000만원이다.

조사가 이뤄질 주요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공정성, 훈련과 대회 출전 지원의 효율성 등이다.

안세영 선수가 지적했던 개인 트레이너의 국가대표 훈련 과정 필요성, 협회의 후원 계약 방식이 '협회와 선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여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배드민턴 종목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 제도의 합리성, 선수의 연봉 체계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이정우 체육국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관 10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했다. 우선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국가대표팀 등 관계자 의견 청취에 나서고,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각적인 조사를 벌인 뒤 오는 9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의 대한배드민턴협회 관련 문제제기)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면서 "지금부터 체육정책을 새롭게 다듬고 개혁하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다. 이번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을 통해 체육계에 대한 잘못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이어 "배드민턴협회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육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학교·생활·엘리트 등 체육 세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하겠다. 환경과 선수들이 바뀌었는데 그 변화에 따라간 데는 좋은 성과를 봤고 그렇지 못한 곳은 어려움을 겪었다. 촉매 역할을 정부 부처에서 해야겠다"고 말했다.

올림픽 사격 메달리스트 출신인 국민의힘 진중오 의원이 이날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스포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체육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체육계의 권익 신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을 놓고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과 소통 부재를 드러냈다"며 "선수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진솔하게 듣고, 앞장서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 누구보다 선수들을 잘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완벽한 전남 여행을 위한 전남관광플랫폼

전남관광플랫폼으로 더욱 특별한 전남여행을 경험해보세요!

번거로운 버스 예약도

취향저격 숙박 예약도

현지인 추천 맛집 예약도

투어, 티켓 예약도

교통, 체험, 맛집, 체험까지 **한방에 할인**

지금 QR코드를 찍고 전남관광플랫폼 JN TOUR를 다운 받아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vailable on the
App Store